

편집 및 발행인 : 조정희 원장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 감수 : 이연경 · 전화번호 : 051-797-4913 · E-mail : kdong@kmi.re.kr

목 차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인도-아프리카 항로, 수요 급증에 따라 서비스 재편 본격화

▶ 미주 · 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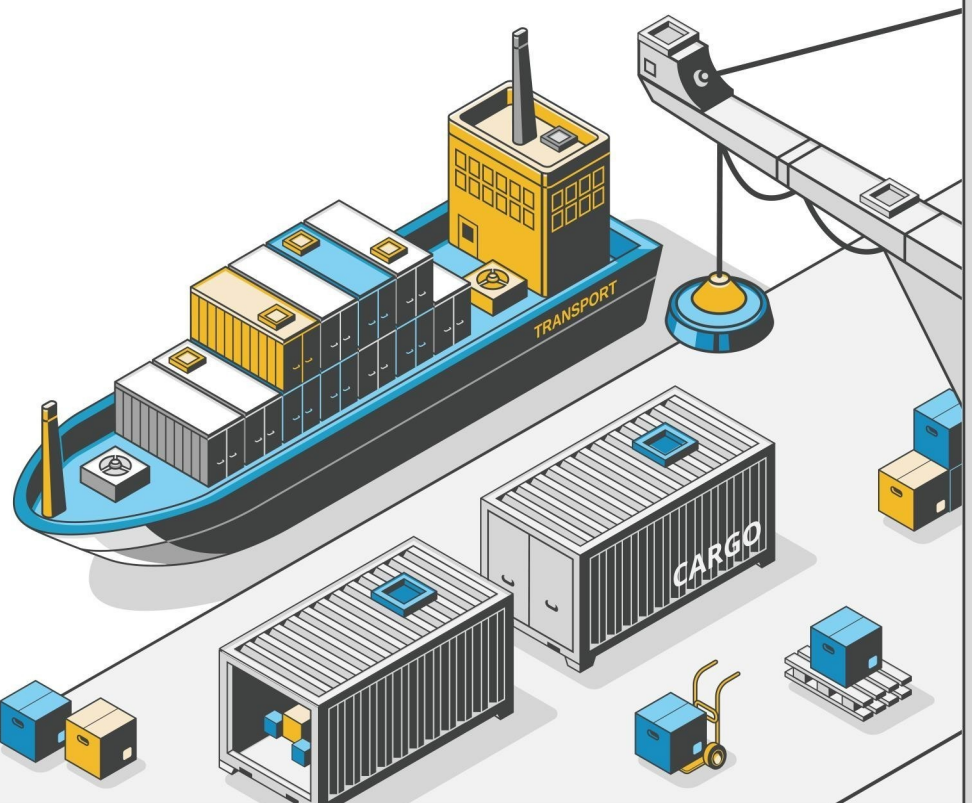
- Union Pacific-Norfolk Southern 합병 추진... 美 최대 철도회사 탄생 기대

▶ 중동 물류시장 동향

- 수에즈 운하 자동차 전용 터미널 개장... 이집트 자동차 물류 공급망 강화

▶ 공지사항

-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인도-아프리카 항로, 수요 급증에 따라 서비스 재편 본격화

- ▶ 제미니 협력체(Gemini Cooperation) 출범 이후 인도-아프리카 항로의 선박 재편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24년 2월 제미니 협력체 출범 이후 선사 간 얼라이언스의 구조 변화가 이어지며 인도-아프리카 간 해상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CMA CGM과의 선박 공유 협정(VSA) 종료 이후, 에미레이트 쉬핑라인(ESL)과 협력해 인도, 중동, 동아프리카 간 신규 서비스를 오는 8월 말부터 개시할 예정임
- ▶ 하팍로이드와 에미레이트 쉬핑라인은 인도-중동-동아프리카 항로를 공동 운영할 예정

 - 신규 서비스의 하팍로이드 명칭은 'East Africa Service 2 (EA2)', ESL 명칭은 'Gulf India Africa Express (GIA)'로 명명되었으며, 나바 셰바(Nhava Sheva)-문드라(Mundra)-제벨 알리(Jebel Ali)-몸바사(Mombasa)-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나바 셰바(Nhava Sheva)를 주 1회 순환 운항함
 - 본 서비스는 4척의 2,600TEU급 선박이 투입되며, 항차당 약 35일이 소요됨
 - The Loadstar에 따르면, ESL Dubai호는 8월 28일 나바 셰바(Nhava Sheva)항에 첫 기항하고, 8월 30일 문드라(Mundra)항에 입항할 예정임
 - 하팍로이드는 "아라비아만 북부, 파키스탄, 유럽, 지중해, 북미발 화물에 대해 경쟁력 있는 환적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ESL은 "해당 서비스는 홍해 및 동지중해 지역 화물에 대한 원활한 연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 ▶ 인도-아프리카 간 해상 교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및 기존 아시아 생산기지를 대체할 거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케냐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망지로 부상
 - 이러한 경제 재편은 해상 물동량 증가로 이어졌으며, 2024년 하반기 이후 인도발 아프리카 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인도-아프리카 항로 물동량은 약 54만 5천 TEU에 달했으며, 이중 머스크(Maersk)가 약 20만 TEU, MSC는 약 14만 TEU를 처리함
- ▶ 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항로 운임도 크게 상승

 - 나바 셰바발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운임은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1,600달러, 케이프 타운(Cape Town) 3,000달러, 루안다(Luanda) 4,000달러, 테마(Tema) 4,500달러 수준임

- **인도의 전통적 대(對)아프리카 수출 품목은 농산물이지만, 최근에는 산업재 수출 비중이 증가**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제품, 자동차, 의약품, 제과류 등의 수출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임
 -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력화, 도시화, 산업화에 집중하면서 인도발 프로젝트 화물이 해운사의 주요 타깃 화물로 부상하고 있음
- **인도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
 - 아다니(Adani) 그룹은 케냐와 탄자니아 등에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음
 - 인도 물류업계도 아프리카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뭄바이 소재 Abrao Group과 Rushabh Sealink는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해 합작법인 A&R Africa를 설립하고 포워딩, 창고, 통관, 프로젝트 화물 운송, 선사 대리점 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인도-아프리카 간 해상 교역의 급성장은 단순한 물동량 증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선사 간 얼라이언스 재구성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
 - 주요 선사들의 항로 재배치와 신 얼라이언스 체결, 프로젝트 화물 확대는 동아프리카 항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고부가가치 소비재와 산업재 수출이 증가하고, 프로젝트 카고 수요가 동반 성장함에 따라, 복합물류 서비스와 특수운송 역량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인도 민간 물류기업들의 아프리카 현지 진출 확대는 아프리카 물류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에 따라 국내 해운·항만·물류 기업도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신흥 교역지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참고자료: <https://theloadstar.com> (검색일: 2025.8.5.)

Union Pacific-Norfolk Southern 합병 추진...美 최대 철도회사 탄생 기대

- Union Pacific이 850억 달러에 Norfolk Southern을 인수해 美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망을 구축하고 美 전역 철송 서비스를 재편하는 계획 발표
 - Union Pacific(이하 UP)은 지난 7월 29일, 경쟁사인 Norfolk Southern(이하 NS)을 8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美 최초의 대륙횡단 화물철도 운영사를 설립해 곡물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美 전역의 물류 흐름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양사 경영진은 2006년 철도 물동량이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트럭 운송에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합병만이 철도 물량 성장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함
 - 이번 인수안이 승인될 경우, 철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美 서부 2/3 지역을 장악한 UP와 美 동부 22개 주에 걸쳐 총 31,400 Km 철도망을 보유한 NS가 결합하게 되는 셈임
 - 두 기업의 합산 기업가치는 약 2,500억 달러에 달해 연간 27.5억 달러 규모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사는 지난 5월부터 합병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해 현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힘

Union Pacific과 Norfolk Southern 합병을 통한 신규 운송 서비스 계획



자료: Union Pacific/Norfolk Southern (검색일: 2025.08.04.)

- 이번 합병을 통해 구축될 UP-NS의 단일 노선은 美 중부 내륙 물류망을 확대하고 운송 효율성을 높여, 트럭 의존 시장을 철도로 전환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전망
 - UP와 NS는 연간 약 100만 건의 화물을 상호 교환하는 최대 파트너로, 이번 합병을 통해 단일 노선(Single-line)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시카고나 멤피스 등 주요 관문의 혼잡을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트럭 환적을 제거함으로써 운송 시간이 24~48시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함

- 해당 대륙횡단 서비스는 인터모달, 완성차, 식음료, 화학제품, 철강 등 다양한 화물을美 전역에보다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으며, 고객은 단일 철도사로부터 통합 견적 및 청구를 받을 수 있어 운영 효율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그동안 동·서부 철도사의 노선 길이 한계로 충분히 서비스되지 못했던 위스콘신, 미네소타, 東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 이르는 美 중부 내륙(watershed)지역에 대한 철도 접근성과 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현재 UP와 NS 간 환적화물의 95%는 2,000마일 이상의 장거리 노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000~1,500마일 중거리 구간은 단 5%에 불과한데, 이는 기존 철도서비스가 운송 시간 지연,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으로 인해 회피되어 왔기 때문임
- 그러나 이번 합병을 통해 구축되는 단일 노선 서비스는 현재 트럭에 의존하던 중거리 물류 시장의 철도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수익은 17.5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이번 철도 합병은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하나, 노조 반발과 과거 합병 부작용에 따른 물류 혼란 가능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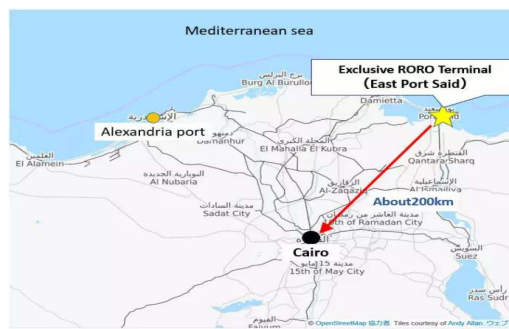
- 이번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 장애물로 작용했던 규제들이 행정명령을 통해 완화되며 합병 가능성이 높아짐
- 철도산업의 경쟁과 경제적 이슈를 관할하는 美 육상교통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는 법률상 16개월의 심사 기간을 요구하며, 양사는 6개월 내 STB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거래는 2027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美 최대 철도노조인 SMART-TD는 합병안이 STB에 제출될 경우 운임 인상, 서비스 중단,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함
- 실제로 1996년 UP와 Southern Pacific의 합병 이후, 美 남서부 전역에서 심각한 물류 정체와 서비스 지연이 발생한 바 있어, 현재 물동량 변동성, 인건비 및 유가 상승, 운송 서비스 신뢰도 하락 등에 직면해 있는 북미 철도 업계는 이번 합병이 복잡성을 증폭시킬 것을 우려함

참고자료: <https://www.cnn.com>, <https://www.freightwaves.com> (검색일: 2025.08.04.)

수에즈 운하 자동차 전용 터미널 개장... 이집트 자동차 물류 공급망 강화

- ▶ '25년 7월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자동차 터미널(SCAT, Suez Canal Automotive Terminal) 운영을 공식적으로 개시
 - 이 터미널은 이집트 동부의 포트사이드에 위치하며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청과 체결한 30년 운영권 계약에 따라 개발됨
 - 부지 면적은 약 21.2헥타르이며 대형 자동차 운반선(PCTC) 2척이 동시 접안 가능함
 - 자동차 보관·처리 능력은 운영 초기 약 2,550대에서 최대 10,000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글로벌 로지스틱스(50%), 일본 NYK(25%), 일본 도요타 통상(25%)이 합작법인(JV, Joint Venture) 형태로 추진했음
 -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글로벌 로지스틱스가 보유한 아프리카 항만 관련 운영 지식, 일본 NYK의 완성차 운송 및 터미널 운영 분야 지식 및 기술, 일본 도요타 통상의 이집트 기업 대상 사업 경험들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SCAT 터미널 개장



SCAT의 위치



SCAT 조감도

자료: <https://www.automotive logistics.media>, <https://breakbulk.news> (검색일: 2025.08.04.)

- ▶ SCAT 개장을 통해 최근 이집트 내 자동차 수요 증가 및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의 생산 확대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반적인 자동차 물류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집트의 자동차 시장은 타 국가에 비해 다소 작으나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으로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음
 - 또한 '25년 상반기 이집트 자동차 판매량이 43% 증가하는 등 인구 증가 및 경제 위기 회복에 힘입어 자동차 수요 또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이집트는 전략적 이점,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인센티브 등 생산기지로써의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 최근 폭스바겐,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의 생산기지로 각광 받고 있음

- 이처럼 이집트 내 완성차의 수요 증대, 글로벌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수에즈 운하 자동차 전용 터미널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터미널 개장을 통해 이집트 동부 포트사이드의 물류 처리 용량과 속도가 향상되어, 이집트 및 인근 국가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공급망의 핵심 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뿐만 아니라 향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북아프리카, 동지중해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환적 거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SCAT 개장 이후 모습



자료: <https://www.toyota-tsusho.com> (검색일: 2025.08.04.)

- 이집트는 SCAT를 통해 완성차 수출입 물동량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향후 환적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5. 7. 21(월) - 8. 13(수)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제출 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과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hjsung@kmi.re.kr) 제출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김동한 센터장
T 051-797-4913 E kdong@kmi.re.kr
성현정 전문연구원
T 051-797-4648 E hjsung@kmi.re.kr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사업 개요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업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금액

조사비용의 최대 **50%** 지원 (최대 **1억원**)

2.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해외물류거점 확보(현지법인 및 지사 설립), 수출입 물류공급망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현지 물류시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내용

해외진출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인건비, 국외출장비, 컨설팅비 등) 지원

지원금액

- | | |
|--------------------------|---|
| ✓ 물류기업
단독 수행 | 조사비용의 최대 50% 지원
(최대 3천만원) |
|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조사비용의 최대 50% 지원
(최대 4천만원) |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2025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2025.06.02(월) - 09.05(금)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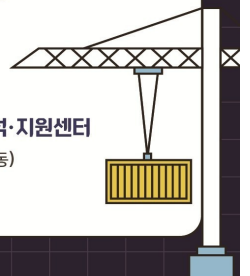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물류창고)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 에 따른다
-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25년 12월 중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e-mail 접수(아래 메일 주소 참고)
- 신청 수수료 납부
 - * 신규 인증 : 300만원
 - * 납부 계좌 :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 문의 : 051-797-4913, kdong@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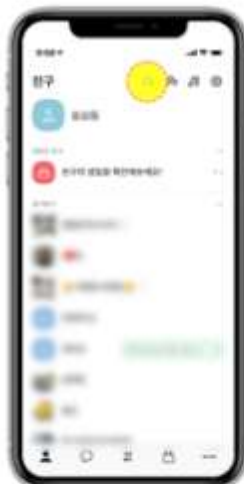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